

☞ 6면, 7면에 『감람나무 우리 엄마』 찬송 해설

감람나무 우리 엄마

1980년 10월 15일 자로 “내가 이긴자가 됐다. 네가 완성자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기셨지요.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셨지요.’ 하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또 이겼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이긴자와 가짜 이긴자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나 하면 가짜 이긴자들은 전부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다. 가짜와 진짜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때까지 이 조희성이 이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감람나무 우리 엄마' 이 찬송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집필한 지 30분 만에 수정도 하지 않고 지어버린 것이다.

[감람나무 우리 엄마 발자욱마다 피땀 냄새 천번 만번 곤두박질 갖은 포학 당하셨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소탕하여 박멸하고 육천 년간 고대하던 시온성을 찾으셨네]

시온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인 것이다. 이 사람이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이고 생명의 도시이다. 영도님과 해와 주님 두 분이 죄를 담당하여 시온성을 찾으신 것이다.

[이 길만은 우리 인생 엄마 없이 못오는 길]

이 길만은 엄마 없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엄마가 있는 고로 엄마의 이끄심을 따라 이곳까지 온 고로 엄마 없이는 못 오는 길이다 하는 것이다.

[감람나무 우리 엄마 우리 위해 통곡했네]

이들이 멀다하고 밀실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던 것이다. 거기에는 민가가 가까이 없고 산과 하늘만이 있는 곳이었으나 한적한 곳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전체 식구들이 20년 가까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밀실 안에서 연단과 연단 속에서 움직이던 것이다.

해와 이긴자 되시는 분이 “오래 오래” 하면 몸속에 있는 죄 뿌리가 빠져 나오면서 시원하게 은혜가 연결되며 손짓을 하면 은혜가 나가는 무서운 능



삼신(三神: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활(役活)을 하는 곳으로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 _ 격암유록 세론시 사진 출처: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451페이지

력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 누구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생각을 먹으면 생각 먹는 대로 일일이 지적을 하시니 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로 예산을 하면 '예산하는 음란죄'를 지었다고 하여 예산하는 자유도 없고 아무리 자유유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이 나오고 관심을 갖는 생각이 나오니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 뿌리가 나오는 고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쓴 뿌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 일이 있는 것이다.

'쓴 뿌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 쓴 뿌리가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나오려고 도사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리 알게 해 주시고 이것을 기도로써 그 쓴 뿌리를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에 쓸어 넣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수없이 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무저항에 쓸어 넣는 시대였던 것이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긴자가 되기 전의 기도 방법은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에 쓸어 넣어 달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무저항에 쓸어 넣고 그때 그때마다 마귀를 뿌리째 뽑아서 무저항에 쓸어 넣으니 이 사람이 완전히 이겼다가 된 다음에는 기도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제 기도가 바뀌어진 것은 그 전에는 '박멸소탕'을 할 수가 없는 고로 무저항에 쓸어 넣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로 마지막 완성자가 나타나서 마귀를 박멸소탕해서 가루도 존재 없이 없애버리는 능력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게 되었고 그전에는 무저항에 쓸어 넣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밀실 안에 있는 식구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줄 몰랐던 것이다. 해와 이긴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고로 무저항에 쓸어 넣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애걸복걸 피투성이 밤새도록 마귀 죽여]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해와 이긴자 되시는 분은 밤을 지새우며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 분이었고 20년 넘어 밀실 안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죽을 인생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엄마]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아 본 자가 아니라 진짜 이 고마운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사망 권세 잡은 마귀 피 속에서 육천 년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 인생들 피 속에서 육천 년간을 역사해 왔던 것이다.

[인생들은 더러워져 잔악하게 물들었고]

그러므로 인생들은 더러워져 잔악하게 물들어 가고 있으며

[슬픈 탄식 괴롭 속에 참혹하게 죽어 갔네, 완성 엄마 따라오면 영생 복락 누리리라]

완성 엄마! 이제 완성자가 나왔으니 완성 엄마를 따라오면 영생 복락 누리리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 외로워도 주님 함께]

그대로 말할 수 없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한 것을 오늘날 걸어온 이긴자가 아니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험한 길이요, 얼마나 가시밭길인 것을 말로만 해서서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가시밭길인 것이다.

[자신 속의 옛사람을 짓이겨서 죽이는 길]

이 길은 그대로 자신 속의 옛사람을 짓이기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짓이겨서 가는 길인데 나를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것이 반대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자신을 짓이겨서 옛사람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천번 만번 죽고 죽여 최후까지 견디는 길]

천번 만번 나라는 것을 죽이고 죽여 최후까지 견디는 길. 도저히 견딜 수 없

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숨이 가쁘고 의식이 들랑거릴 정도로 말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는 너무나 참혹한 경지에서 최후까지 견디는...

그러므로 최후까지 내가 견디는 아니요, 온전히 맡긴 고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움직이는 고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견뎌야 하는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고로, 죽을 자유도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숨이 가쁘고, 아무리 의식을 잃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고로 최후까지 견디는 것이다. 최후까지 견디는 그 경지는 바로 사망의 경지인 것이다.

[구세주의 우리 엄마 따라오면 영생 하리]

이 사람이 밀실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 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니 밀실 안의 식구들과 서울에 산재해 있는 밀실에 속한 식구들이 울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 찬송을 듣고 해와 주님도 목을 놓고 우셨고 전체 식구들이 목을 놓고 울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긴자들이 걸여간 발자취의 표현이 만분의 일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서 싸우는 과정이 있는 고로 만분의 일도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시를 들여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인

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같이 육천 년간 곤두박질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당신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죽어갈 때마다 통곡을 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눈물 없이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육천 년 만에 이루어진 뜻인 고로 말할 수 없이 통쾌한 것이다.

[엄마께서 그 얼마나 외쳤던가 우셨던가]

이것은 오늘날 이긴자가 아니면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를 쓴 것을 알 자가 없는 것이다. 엄마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지체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불우한 자들이 무수히 있는 고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있는 고로 그들을 위하여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우리 하나님 엄마였던 것이다.

[노염 타는 어린 심령 빗대시고 나무라시네]

처음에는 어린 심령이니 대 놓고 나무랄 수 없고 옆 사람 앞사람 나무라시는, 그런 고로 그 앞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욕을 먹어야 하며 그런 심령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하는 이런 일이 수 없이 있었던 것이다.

[때리시고 얼리시는 위대하신 장한 엄마]

때리시고 나서는 실족할까봐 얼리시는 우리 엄마

[대신 울고 죄를 담당 우리들을 영생 주네]

대신 울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들을 영생 주시는 그러므로 고맙고 감사한 엄마인 것이다.

[천대 멸시 받으면서 참고 이기신 우리 엄마]

이 사람이 걸여간 길도 천대 멸시를 받았지만 해와 이긴자 되시는 분도 천대 멸시를 받았던 것이다. 소사 신앙촌 초창기에 천사 마귀라 하여 소비조합원들이 몰려와 나가라 하면 돌아와서 말할 수 없는 욕을 먹어야 했으며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고.

7면에 계속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45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2탄 >

1-2 모든 만물도 신이다.

- 성경에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였다.
-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라고 하였다.
-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요,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분신이요, 신인 것이다.
- 이것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공기, 나무, 쇠 등의 모든 만물은 전부 원소 하나 하나가 모여서 물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원소의 밀집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쇠와 같은 단단한 물질이 되고, 원소의 밀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기나 나무와 같은 약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 그 원소 속에는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
- 전자가 도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 오늘날 과학자들이 무생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생명력이 있다.
- 형태가 있는 것은 모두 생명력이 있으며, 생물이요.
- 생명이 빛이요, 빛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은 곧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오늘날 신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들은 신의 정의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가 서로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 진리는 하나이다.
-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다.
-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 과학계에서도 원소들이 움직이고 있는 힘이 '에너지'요, '에너지'가 빛이요, '에너지'가 생명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빛이 에너지요, 에너지가 생명이다.
-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지는 것도 빛인 '열에너지'가 없어서 생명력이 죽기 때문이다.
- 에너지가 바로 생명인 것이다.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45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 Humans are God. - Part 2 >

1-2 All things are God.

- According to the Bible, all things were created by the word of God.
- It says that the word is life, life is light and light is spirit.
- Spirit is the light of God, light is life and life is the word according to the Bible.
- So all things that have life have the light of God.
- As the light of God is spirit, spirit is just God; all things in this world are the other selves of God, and God.
- Looking into this scientifically, all things such as air, trees, iron, and so on, are formed with an

aggregate of atoms.

- The more condensed atoms form strong materials such as iron. And the less condensed atoms form weak materials such as air or trees.
- Electrons are going around a nucleus and neutron in that atom.
- The electrons are turning due to the power of turning. That is, it has energy.
- Today, scientists say something's are inanimate. But they also have lives.
- Things which have forms have lives and are creatures.
- According to the Bible, life is light, light is God and all things are God.
- Today, all religionists say that

- we can not see God. But they do not know even the definition of God. So religions and science are separated and they condemn each other.
- Truth is one.
- All things are completed into one in truth.
- Being separated is the evidence that is not the truth.
- Scientists agree that the power of moving in atoms is energy, energy is light and energy is the power of life.
- Light is energy, energy is life.
- When people die, their bodies become cold. Because life dead.
- Energy is the very life.*

by Hana